학생운동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기획시리즈(3) - 문예운동의 변화

변혁 주도할 대중속의 선전선동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한다.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변화'에 대해 말한다. 자신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에 조급해 하기도 한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변화를 모색하고 그 계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지금도 대선이라는 정치적 시간의 광간에서 현재의 상황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무엇을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와 주체적 활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 자신의 방향에 대한 대안있는 실천계획을 확보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을 감지하려면 단지 객관적인 상황에만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에 대한 반성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문제다. 그것은 민중의, 민주민족적 이념을 자신의 것으로 실천해 온 활동방식과 태도가 한심의 '위기'를 배태한 사실에 있다. 또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반성은 사뭇 진지하고 총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져온 문예 활동에 대한 잘못된 사고 방식과 비예술적이고 비대중적인 활동방식을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앞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어떤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속에 주체의 문제가 어떤 모양으로 새겨져 있는지에 대한 보다 차분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 반성과 모색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학생문예운동의 활동양상을 그 양식적 변화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현재의 위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우리의 변화의 방향을 찾아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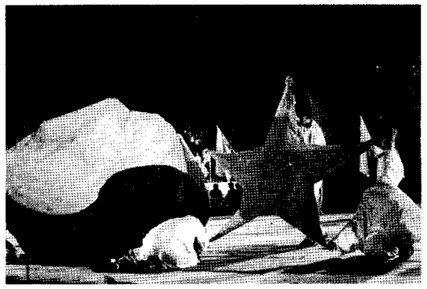
이념의 선전선동으로

학생 문예운동은 진보적 문예운동 역사 속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진보적 문예운동은 당시 군부독재의 정치적 탄압에 맞서 싸웠다. 유신 독재의 탄압에 맞선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발족은 이전 60년대 민족문학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이에 맞물려 학생문예운동은 탈춤부흥운동으로 민족적 정신을 일깨우고 그 진보성으로 민족적, 민중적 의식을 확산시켜 나갔다. 전국적으로 대학에 탈춤반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조직적인 학생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이때 기반하여 현재의 다양한 민중예술이 발전하고 다른 장르로의 발전도 모색되었다. 탈춤반만이 아니라 대학내 문학 모임과 볼카타 써클들도 하나둘씩 진보적인 문예모임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 나간 것도 바로 이시기다. 정치적 현실과 민중의 삶을 꺼안고 민중적 지향을 이루는 새로운 학생문예운동을 이루어 낸 주체들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민중지향성의 태동기라 볼 수 있다.

80년대는 광주 민중의 피의 항거로 시작되고, 문예투쟁도 그 역사적 진실과 부채의 의미의 계승을 고민하면서 발전했다. 광개혁이고 합법적인 저항이나 투쟁이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속에서 학내 문예동아리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정치부대가 되었고, 정치적인 의식화와 조직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성은 높지 못했지만 새로운 세계관과 현실에 기반한 이시기의 문예는 대학내의 학우들에게 높은 대중적 호소력을 지녔다.

87년, 노동자와 민중이 대중적인 역사의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은 문예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 학생문예운동의 양적, 질적 성장과 함께 대중화도 이루어내었다. 장르도 문학회나 노래패, 탈춤 정도가 아닌 춤, 사진, 영화, 연극, 미술, 풍물 등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장르발전은 성없이 전개되는 노동자나 민중의 투쟁으로부터 내용적, 형식적으로 고무받았다. 투쟁의 현장을 직접 느낀 '현장체험'과 문학작품이 나오고, 투쟁과 삶의 여러 형상을 담은 사진작품, 노동자의 투쟁과 학생들의 연대의지를 개태한 형상으로 보여주는 벽그림이나 걸개그림이 등장한 것도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운동의 합법적인 공간으로서의 문예활동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을 가진 문예운동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문예동아리끼리 연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연대를 위한 조직화가 모색되고 수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예운동의 대중적 확산이 대중운동의 발전에 힘입은 것에 비해 학생문예운동의 자기 확장은 그러지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힘들다. 주체와 내용에 일종의 관성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소재나 창작에 획일화나 도식화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에 문예운동은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부문운동으로서의 이념이나 위상설정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보다 심화된 고민으로 전개된 것은 노동자 대중의 투쟁의식이 고양되고 그것과 함께 계급의식이 확산되는 과정과 맞물렸다. 민중운동과 노동자문예운동의 이념을 형상하는 과정에 힘입어 학생문예운동도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문예는 학생의 삶을 인식케하고 진보적 정서로 훈련한다

삶과 정서에 기반두어야 경직된 문예 활동 극복가능

현실에서 출발한 진보적 민중지향으로 변화 찾아야

89년이후 학생문예운동은 노동계급 지향을 명확히 하고 '당파적 문예실천'이라는 이념을 자신의 것으로 하거나, '자주적 문예운동'의 기치를 내걸었다. 어쨌던 그 이념적 지향은 자신의 임무를 학우를 대상으로 한 '변혁적 이념의 선전선동'으로 설정 하였다.

이것이 실천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그당시 대중투쟁의 정세에서 '정세와 결합한 변혁적 이념의 선전선동'에 기반해 있었다. 정세에 결합한 기동성있는 선전선동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집회 문예선전 (이하 통선)이나 가두통선, 대규모 공연이 계속 요구되었고, 문예동아리는 이에 담위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활동의 양식도 대규모의 문선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방식이 요구되었다. 그 중 공연양식의 '집체화'는 그 본래의 쓰임새와는 다르게 촌상적이고 도식적인 선전을 하는 도구로 되었다. 창작에 있어서 주상적 선전내용을 문예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팽배하였고, 문예동아리의 자기 활동구조와 일상활동은 일정한 침체를 가져왔다.

넘어야 할 역사적 유산들

학생문예운동의 주체들은 현재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역사로부터의 넘김지 않은 유산이 한쪽 어깨에 지워진 짐이라면 또 한쪽 어깨에는 학우들의 변화된 상황이 그들을 무겁게 내리 누르고 있다.

역시는 무엇을 과제로 남기는가? 시싶 자기반성의 결과가 실천적 대안을 주지 않을 때 힘들어진다. 그럼에도수록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과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현실주의적 태도이다. 넘어야할 역사적 유산을 창목별로 정리해보자.

1)우선 추상적인 문예관을 넘어서야 한다. 위의 '당파적 문예실천'이라는 자기 규정은 아주 추자적이고 투기적인 실천으로 전화된다. 정투적이기만 할 뿐 문예의 자기 특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성과를 갖지 못한다. 문예의 본래적 의미를 확인하자. 그것은 예술지상주의로 가지는 구호는 아니다. 그러나 예술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통하고 인간적인 지향은 현실의 진실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시하는 예술의 속성과 통한다. 민중의 삶의 일면에 파묻힌 외미뿌여를 하고 과대포장한 형상을 입히는 것보다 그들의 다양한 삶과 애환, 실제정서에 다가서는 노력을 문예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우의 삶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자. 이는 학생의 삶을 다시 인식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진보적 정서에 훈련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창작활동의 경험을 위해서 지적인 깊이라든 그 과정과 양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선 창작과정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예술창작에서 구체적인 삶의 고민과 차분한 현실탐구의 결과가 창작의 동기가 되지 못하고 정치의식의 추상적인 발로에 기반해 있었던 과거의 관행은 학생문예운동에 하나의 전통이 되지 못한다. 또 획일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경직된 문예활동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창작자나 감상자가 모두 삶과 현실에 풍부하게 접하고 감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개성을 풍부하게 확대해가는 관점이 요구된다. 다양한 감상과 개성이 진보적 지향을 가져나가야 할 시기이다. 이것이 '미적, 예술적' 교육이라는 문예활동의 기본적인 임무를 담성하게 해주는, 멀지만 가장 확고한 방안이다.

3)대규모 공연이나 집회문선 중심의 문예활동은 학생문예운동의 자기 역량을 인정적으로 형성하는데에 장애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화되어야 할 학우들의 문예적 경험을 제한하였다. 우선 문예운동의 광간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활동도 다층화 되어야 한다. 문예동아리의 경우 이제는 그 역할을 단지 문예운동을 위한 이념적 결시체로 보아서는 안되며 다양한 문예적 요구와 지향이 모여, 그 안에서 진보적 문예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하고 민중적인 정서를 길러나가는 훈련장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리 안에서의 문예적 훈련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감상훈련을 가능케해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또 창작과 비평의 일상화를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내고, 그 결과가 학우대중들과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넓은길 좁은 시야

우리의 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현재 학생문예운동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가 문예운동을 기꺼이는 하나의 길목을 비추는 전부를 위해서 했다. 그 길잡이를 넘어서는 '길찾기'가 필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폭증은 길을 벗어나 다양하고 영향력있는 활동의 양식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학우대중들의 문화적인 기호가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그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에 기반해 있다. 주도적인 힘으로 객관적인 문화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중문화의 광범한 확산이다. 학우들은 학내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대학생들의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확산되어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이 대중문화의 침투에 감염되고 있다. 특히 놀이문화를 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게 하는 기제로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노래방'이다. 텔레문화의 확산과 방송의 광고나 드라마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이러한 일상의 문화에 대응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예활동의 양식으로 발전해야 할 문제이다. 일상적인 예술적 경험과 생활문화에 대한 비평적 접근이 새롭게 요구되며, 이를 통한 '의식과 정서의 바로잡기'가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생활문화운동'이 커피 안마시기나 우리 옷입기의 수준에서 원시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의식과 정서의 통일로서 문화예술활동 영역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6)좁은 우리의 창작과 공연이 대중문화에 대응하고 그것에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연세대 중앙노래패의 공연을 비롯한 몇몇 공연에서 시도된 것인데 진보적인 예술과 상업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양예에도 전문적이기를 원하고 '예술성'에 충분히 천착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한 현실탐구와 창작활동의 구체성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있다. 노래패의 경우, 소규모의 공연을 통해 일상적으로 학생대중을 진보적인 정서로 흡수해가고 자신의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모두 전문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학의 극패들이 시도하는 창작극이나 몇몇 창작곡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더욱 발전시켜 활동의 정형과 다양한 실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 운동지향성의 문예에 대한 학우대중의 선입견을 혁파해야 한다. 식상하고 조야한 공연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중적 파급력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위에서 지적한 학생대중에 대한 대중문화 영향력의 확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지적한 진보적 문화의 도식성과 추상성의 비예술적 형상을 통한 표현이 문제이다. 보다 치밀한 현실탐구가 구체적 형상으로 만들어 질 때 정서적 감동을 줄수 있다.

진한물 준비해야 할 때

학생문예운동의 현실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 오히려 위기감의 증대와 활동의 위축앞에 몸추려든다. 그러나 현실주의를 지향하자는 말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는다. 현실주의자는 현실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진정한 전환을 준비하자는 제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대중의 생생한 정서를 이해하자고 부탁하고 싶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직 변화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변화의 실제적인 담지자인 학우대중들의 정서와 생활에 깊이 자리잡아야만 그들이 문화환경과 예술적 기호의 변화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고 이것에서 진보성의 맹아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

삶의 구체와 그 변화의 전형을 찾아나가는 일, 진보적 민중지향성을 현실주의의 바탕로서 문화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찾아나가는 일이 전환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기다.

고 성 현
(전국학생예술인연합 교육선전부장)

삶을 생각하는 노래하고파

인터뷰

'동트는 새벽' 회장 최용석(경제·3)군을 만나

노래는 선전선동의 도구일 뿐 아니라 청중이 자신의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최용석(경제·3)군.

정경대, 가정대 연합 노래패 '동트는 새벽'의 회장인 그는 이전 노래운동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90년도 이전에만 해도, 공연이라함은 선전·선동의 장이었습니다. 즉 시회비판과 정치타도의 장이었죠. 그러나 이제, 관객들을 수동적 위치에 놓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같이 고민하는 상태로 인식하고, 공연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존 민중가요에 대해 최군은 두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모든 학우들에게 익숙한 리듬으로 대중성을 확보한 것은 발전된 점이나, 그 대중성이 혹 자본주의를 위한 대중성이 아닌지는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는 현재의 민중가요는 이념과 관념성의 극복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념의 강조가 아닌, 다양한 삶의 형태속에서 건강한 민중지향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도 정을 위하고 반을 비판하는 변증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야죠. 그러나 이것이 반대급부로 재미만을 강조하여 문화를 '도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최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많은 자료를 모았으나, 모은 자료의 정리마저도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울림, 탈반의 '조촌노학'은 '문예물이 어떻게 하나의 시안을 표현할 수 있는가'의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막강한 선전매체에 복무한다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것이 가끔은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최군은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眞)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

꿈과 희망을 주는 한줄기 빛 되어

환한 빛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빛은 꿈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어둠을 가르는 한줄기 빛을 만드는 전기 -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산업의 원동력이 되어
꿈과 희망이 있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한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